하나님의 매력과 하나님 뜻의 매력

(사사기 8:22~35)

22.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6.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매력과 하나님 뜻의 매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매력과 하나님 뜻의 매력'
"GFFIS(Green Film Festival in Seoul)"라는 서울환경영화제를 아십니까? 2004년부터 뛰어난 환경영화를 찾아내서 널리 알리고, 환경영화의 창작을 지원하고 환경영화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서울환경영화제 단편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28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핵발전소"라는 제목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츠벤텐도르프 핵발전소로 비엔나에서 불과 30km정도 떨어진 츠벤텐도르프 도시에 세워진 발전소인데 70만km급으로서 우리나라의 고리 핵발전소보다 약간 큰 규모입니다. 1978년에 이 핵발전소가 가동준비를 마쳤는데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78년 11월

에 이 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싼 국민투표가 진행되는데 50.47%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반대해서 가동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게 됩니다. 당시에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4,600억 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에 그 돈은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매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발전소에 초등학교를 입주시키고, 노인들의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연회장소를 만들고, 그린피스 회원들의 활동 장소로도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서 가장 안전한 핵발전소로 이름이 났습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고 고리 핵발전소에서 끊임없는 고장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곳은 너무나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한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삼백 명이 십삼만 오천 명이 중무장한 진영 코앞에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서 자신들의 존재와 위치를 다 드러내도 털끝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칠 배로 뜨겁게 만들어 놓은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도 머리털하나 그슬리지 않고 고스란히 살아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안전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풍랑만난 배 위에서도 마음껏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위력은 핵폭탄 이상입니다. 삼백 명으로 십삼만 오천 명을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만 주어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함성 한 번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막강한 초강대국 애굽 군대가 한 순간에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와 달도 멈추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한대로 안전하고 무한대로 강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눈을 뜨면, 그 외에는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맛을 체감하고 나면 뿌리칠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뜻의 매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데, 그 뜻을 구할 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가장 치명적인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눈을 뜨게 되어서 에봇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 당연한 귀결로 기드온에게 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기드온뿐만 아니라 아들도 손자도 왕이 되는 세습 왕가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거절을 하며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고 너무나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답변에 대해 굉장히 겸손하고 올바른 대답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점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기드온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는 말이 완전히 불 신앙적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많은 아내가 칠십 명의 아들을 낳았고 세겜에 있는 한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칠십 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는 기드온의 말 중에 이 재앙의 씨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시리라’는 말을 했는데 많은 아내들이 낳은 칠십 명의 아들들 중에 요담을 빼놓고는 첩이 낳은 한 아들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상합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라’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었을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에봇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을 거절한 직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귀고리를 노획했었는데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속옷과 겉옷을 다 입고 맨 위에 걸치는 긴 조끼입니다. 그 조끼의 견대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여섯 지파씩 양쪽에 쓰여 있고, 가슴의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담고 나가서 여호와의 뜻을 묻게 됩니다. 즉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이 갖는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실로에 중앙 성소인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앞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러한 것들을 다 제치고 에봇만을 가집니다. 번제단 없이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에봇의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갖는 매력에 빠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장님께서 능력이 탁월한 젊은 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사원들에게 ‘김 사장이 하는 말이 곧 나의 말이니 무조건 김 사장의 말을 들어라. 김 사장이 회사를 다스릴 것이고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고서 자기는 놀러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드온은 삼백 명으로 십삼만 오천 명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진멸시킨 여호와의 뜻의 힘을 체감하고 완전히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에봇은 단 하나만 있어서 중앙 성소의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데 ‘에봇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매력에 빠져서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유화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래 신앙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느냐?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므로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가

지고 싶은 것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세상에 대한 내 욕망과 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소원을 가지지 않고 욕망을 표현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장 완벽한 결실이 삶에서 주어지게 되자 하나님 뜻의 힘과 매력을 체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고, 그만큼 안전하게 결실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뜻의 매력에 마음이 빠지게 되어서 번제단을 상실하고 에봇만을 챙기게 됩니다. '번제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좋은 것들을 향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좋아질 때에 번제단에 가서 그 마음에 대해 죽어야 하는데,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칠십 명의 아들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마음에 좋은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다 마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마음의 한 손으로는 눈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붙들고, 마음의 다른 손으로는 하나님의 뜻의 매력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유전적 죄의 경향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서 욕망하게 되고,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손으로는 하나님의 뜻의 매력을 붙잡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좋아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뜻이 갖고 있는 뜻의 매력을 붙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을 번제단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의 매력을 붙잡고 있으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내 마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좋아하는 세상 것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게 되어서 아내를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왕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내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왕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였고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뜻의 위력이 삼백 명으로 십삼만 오천 명을 무찌른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에봇을 만들었으나 번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지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합니다. 그럴 때마다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기드온이 첫 아내를 가진 이후에 다른 여자를 볼 때에 욕망이 생겼다면 그러한 자신을 번제단에서 죽여야만 했고, 다른 여자를 통해 얻고자 했던 기쁨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매력적인 뜻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단에서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의 성향을 죽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의 매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자, 내 마음의 욕망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지게 되고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와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라고 했던 기드온의 우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은 느끼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뜻의 매력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뜻을 따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결실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매력에 빠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결실에 마음이 가있고, 이 세상에서 인생의 확고한 보장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할 때에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의 매력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을 내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시37: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세상적 소원을 이룬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으로 나타나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있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고 그야말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못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매력에 빠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 세상 것들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가진 매력은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상한 기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 확실하다면 지금 그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더라도 완전한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지 않은 채 하나님 뜻의 매력에 빠지는 것은 핵발전소가 터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번제단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매력에 빠지려는 내 마음이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발적인 당신의 섭리를 따라 내게 주어짐으로서 삶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